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사조위, 조사 자료 공개해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과 조사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사조위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인도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안에 사고 원인을 밝힐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유가족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가족을 무시, 진실을



21일 오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과 조사 자료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공항서 기자회견 “사조위 독립, 공정성 확보”

“블랙박스 데이터 등 유족에 정보 공개” 요구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사조위는 엔진 손상 부위와 블랙박스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참사의 증거인 둔덕(방위구 시설)을 옮길 수 없다. 무안공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광주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구립 제자리... 시립만 개선’

광주시 “100% 자치구 부담 줄여 30% 지원” 구청장협의회 50% 지원 요구 8개월동안 고집 “시립시설 종사자 명절휴가수당·호봉제 전향”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개월 동안 5개 자치구와 논의를 지속했지만 예산 분담률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는 시립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를 다음달부터 우선 개선하고 구립청소년 시설은 추후 재논의 할 계획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 강 시장의 공약인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 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를 펼쳤지만 구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

원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시립청소년시설 종사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역 청소년시설은 수원원·문화의 집·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시립시설 12개소와 구립시설 21개소 등 총 33개소가 있다.

종사자는 시립시설 140명, 구립시설 144명 등 총 284명이 있으며 시립시설의 급여는 팀원기준 평균 300만원, 구립은 270여만원으로 30여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 따라 시립청소년 시설 종사자에게 다음달부터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6년도부터 연봉제 계약 방식을 호봉제로 바꿔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명절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2500만원을 확보했으며 3년동안 1억2700만원을 지급한다.

구립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구청장협의회가 예산 지원 비율을 놓고 ‘광주시 50%·자치구 50%’를 고집함에 따라 협의를 중단하고 추후 재 논의한다.

그동안 구립시설 종사자의 급여 등은 자치구가 100% 부담했지만 광주시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 30%·자치구 70%’를 제안했다.

예산 규모는 6억9000여만원으로 시 지원예산을 제외하고 5개 자치구가 분담하면 수천만원 수준이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구립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립청소년시설 종사자는 “구립시설 종사자들은 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번 처우 개선 논의를 기대했었는데 성과없이 끝나 허탈해 하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에도 버텼던 종사자들이 하나 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광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은 임금 인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협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립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어렵다”며 “추후에도 논의를 지속해 청소년 지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181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형사 입건, 본격적인 수사가 나섰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

전남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5명 형사 입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경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에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무안공항 관련 공사와 점검 관련 서류 등 증거물 1373점을 압수했다.

지금까지 참고인 55명에 대해 60차례

조사를 실시, 압수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감정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입건과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9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이어간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5·18 항쟁 또다른 구심점 남동성당, 기념 쉼터로 의의 기린다 광주시, 남동성당 내 5·18 기념 쉼터 조성 공사 발주

5·18민주화운동 중반 민주화를 열망한 재인사들이 모였던 또 다른 항쟁 구심점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남동성당·5·18 사적지 25호)에 45년 전 항쟁 의의를 기리는 쉼터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최근 남동성당 내 5·18 기념 쉼터 조성 공사 발주에 나섰다

22일 밝혔다. 시는 남동성당 주차장 한편에 지상 1층 규모(연면적 23.1㎡)의 쉼터를 세울 방침이다.

쉼터에는 5·18 당시 광주지역 천주교 사제들과 재야인사, 성당이 도맡았던 역할 등이 담긴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쉼터 조성 사업은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남동성당이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닌 45년 전 항쟁의 또 다른 구심점이자 인권 운동의 성지라는 점을 기리기 위해 추진된다.

1949년 지어진 남동성당은 1980년 5·18 당시 지역에서 존경을 받던 민주·인권 인사들이 모여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국을 논의하던 곳이다.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집단 발표 하루 뒤인 5월 22일 남동성당 사제관에서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와 고 송기숙 교수, 고 조아라 선생, 고 명노근 교수, 당시 성당 주임신부였던 김성용 프란치스코 신부 등 12명이 모였다.

회동을 가진 인사들은 앞서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던 기존의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재야인사들은 이후 남동성당 수습대책위원회(수습대책위)를 발족, 시민수습대책위와 일원화한 뒤 수습 대책안을 정리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5월 26일 수습대책위는 옛 전남도청 집단발표 이후 광주지역에서 물러

난 계엄군이 시내 재진입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거리로 나섰다.

수습대책위는 계엄군과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 위해 서구 농성동을 시작으로 4km 구간을 걸으며 ‘죽음의 행진’을 벌였다. 김 신부를 중심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군을 후퇴시키라’고 촉구하면서 당일 계엄군의 재진입을 막을 수 있었다.

재진입은 막았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김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광주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수습대책위원들과 협의하고 같은 날 오후 광주를 떠났다. 광주의 실상이 전달된다면 김 추기경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만나 계엄사의 강경대응을 완화하고 광주의 수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 신부는 13차례 검문을 거치고서야 다음날인 27일 밤에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27일 오전 계엄군이 옛전남도청을 함락하고 시민군을 무차별 학살한 뒤였다. 김 신부를 비롯한 수습대책위원들은 5·18 직후 계엄당국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다.

이후 남동성당에서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천주교구청과 사제단이 주관하는 추모 미사가 한 차례도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띤 미사를 시작으로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결성식이 열리는 등 시민들이 부당한 권력에 투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퇴·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국정원 개혁과 5·18역사 외곽처벌법 제정 촉구를 호소하는 미사 등도 열리면서 지역 인권 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이번 쉼터 조성 사업을 통해 남동성당이 복원을 앞둔 옛 전남도청과 함께 당시 지역 내 항쟁 구심점이었다던 순간을 조명하고자 한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